

세계의 시선, 전북으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국내외 바이어·관람객 발길 ‘복작’… 글로벌 식품산업 교류의 장으로 ‘우뚛’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3회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개막 이틀째 를 맞아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엑스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시 구성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효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전북을 넘어 세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장 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B2B 수출상담회에는 15개국 52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활발 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전북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발효식품과 농 생명 제품들이 글로벌 바이어들의 눈 길을 사로잡으며, 해외시장 진출 가 능성을 확인했다.

브라질 대형 유통사 MERCEARIA



Q&Q LTDA의 총괄 바이어 메시아스 페레이라 로베르토(Messias Pereira Roberto) 씨는 “건강한 먹거리가 세계 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한국의 발효 식품은 진정한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 다”며 “전북의 기업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 을 밝혔다.

익산의 농산물 가공 전문업체 팜조 아 농업회사법인의 황은경 대표 역시 “엑스포를 통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 과 보안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 다”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엑스포를 계

기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 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관료 개척,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 화해 전북 발효식품의 세계 시장 진 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 기획전시관을 비롯해 글 로벌농생명관, 선도상품관, 상생식품 관, 해양수산관 등 다양한 전시공간 에도 관람객과 국내외 주요 매체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효식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은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 었으며, 라이브커머스 방송, VR 체험, 식문화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다채 로운 부대행사 역시 박람회의 흥을 더했다.

전통의 깊은 맛과 첨단 기술이 어우 러진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는 11월 3일까지 전주에서 계속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와 전북신협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생경제 활력 위해 손잡다

전주시·전북신협,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상생방안 논의

전주시와 전북신협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 댔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주 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 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자금 선순환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침체 장기화 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 민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

장과 전북신협 임직원이 참석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금융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다 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 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협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 서고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연수 전북신협 본부장은 “신협 은 지역사회의 금융 뿌리로서 서 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2025 전북특구 테크비즈 파트너링’ 성황리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 은미)이 지역 기술사업화와 연구소 기 업 협력 강화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최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서 ‘2025 전북특구 테크비즈 파트너 링’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 다.

이번 행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의 ‘2025 전북특구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연구개발 특구본부 주최 아래 특허법인 남춘, (주)전주대학교 기술자회사 등 6개 수 행기관이 참여했다. 지역 기술공급기 관과 수요기업 간 기술 매칭과 사업화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 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기술상담회 △R 데모 행사 △유망 Lab 파트너십 △금융·오픈이 노베이션 등 4개 트랙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술상담회에서는 14개 기관이 출품한 353건의 기술이 선보였으며, 이 중 유망기술 SMK 72건은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매칭됐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 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도 142건의 자체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이 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덕특구의 이 차전지 및 수소 관련 기술 8건도 함께 소개돼 기술 다양성을 더했다.

R 데모 행사는 사전 R 컨설팅을 거 쳐 선정된 우수 연구소기업과 전북특 구 유망기업이 기술과 비전을 발표하 는 자리로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베트남과 경제 협력 강화… 교류 활발

호치민 산업시찰·KOCHAM 간담회·‘코참 프리미엄 소비재 페어’ 참가

전주상공회의소가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강화하며 지역 기업의 해 외시장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 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SECC 전시 장 A홀에서 열린 ‘2025 베트남 코참 프리미엄 소비재 페어’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상공 회의소와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KOCHAM) 간 체결된 업무협약 (MOU)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마련됐 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양국 간 경



제·무역 협력 확대와 회원기업의 해 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 력해왔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2025 베트남 코참 프리미엄 소비재 페어’는 KOCHAM과 (주)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뷰티·패션·식품료·리빙 등 프리미엄 소비재 중심의 약 45개 부스가 운영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전시회 기간 홍보 부스를 마련해 회원기업들의 우수 제 품을 전시·홍보하며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전북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선보였다.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대림석유(주)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선 진공업(주)(금속가공 제조업) △(주)정석 케미칼(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술고네스판(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주)윌릭스(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등이 참여해 전북 제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김제서 ‘한면’ 파종 연사회·제품 출시 행사 개최

국산 밀 자급률 1% 시대, 국내 소비 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한면’ 산업 에 최적화된 국산 밀 품종 ‘한면’이 첫선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랑면 한마음농조조합원에서 신품종 밀 ‘한면’ 파종 연사회 및 제품 출시회를 열고, 국산 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한면’ 품종 소 개와 내년 품종을 기원하는 기계 이용 가능플러밍 파종 시연, ‘한면’ 우리밀 국수 출시 및 시식 행사 순으로 진행 됐다. 이날 현장에는 생산자 단체, 가 공업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관 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산 밀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해 개발된 ‘한면’은 단백질 함 량이 10.8%로, 국수와 라면용 중력분

제조에 최적화된 품종이다. 반죽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뛰어나 면발의 탄력 과 쫄깃함이 탁월하며, 소비자 관능평 가에서도 수입 밀과 견줄 만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한면’은 또한 내한성과 내도복성 (추위·쓰러짐 저항성)이 뛰어나 재배 안정성이 높고, 속기가 빨라 이모작 재배에도 적합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북형 양자산업’ 본격 시동

에너지·바이오·센서 등 주력산업·양자기술 융합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핵심 산업으 로 떠오른 양자기술을 지역 산업과 접목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세미나’를 개 최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양자기술의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 진하는 3대 메가신산업 가운데 하나 인 양자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북테 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전북디지털융 합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 양자 기술 관련 기관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의 핵심 과제인 에너 지 하베스팅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 다.

이날 발표에서는 △김효실 미래양자 융합센터장이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AI 융합 방향’을, △염상운 아이디 콤비닉스(IDQ) 대표가 ‘AI 시대의 보이 지 않는 방해, Quantum-Safe 인프라’

를, △이하영 전북대 박사가 ‘수요기 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을 각각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 양자 산업 육성 로드맵’과 ‘수요기반 실 증·컨설팅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 향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 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 석자들은 양자센서, 에너지 하베스팅 등 핵심 기술을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전북형 양자클러스터 조성 전략에 대한 다양 한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연세대 박성수 교수(양자컴 퓨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 영희 센터장(양자정책), △정보통신기 획평가원 이민경 팀장(양자 R&D 기 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근우 팀장(양자 표준 및 시험인증), △SK 브로드밴드 정소기 매니저(양자 융합 서비스) 등 국내 양자 분야 주요 전 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양자정책과 지 역 실증사업의 연계 방향을 함께 모 색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